

■ 2026 새해설계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지역 미래 지도 재편”

산업 입지·도시 기능 재편 통한 지역 성장 전략 전환점
AI·모빌리티·에너지 신산업 대한민국 신성장 축 도약

“공항 이전·인재 육성·기업 유치로 지역 미래 먹거리를 선점해야 합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광주·전남이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을 기점으로 산업 구조와 인재 생태계를 함께 재편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기업이 모이고 사람이 머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 경제 재도약의 핵심 과제라는 진단이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지난해 지역 경제와 관련해 “내수 회복 지연과 글로벌 경기 둔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쉽지 않은 한 해였다”며 “자동차·가전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기업들이 생산과 고용을 지켜내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회고했다.

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에너지·우주·항공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구조적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원 회장은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은 광주와 전남의 미래 지도를 새로 그릴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며 “공항 이전은 단순한 기반시설 이동이 아니라 산업 입지와 도시 기능을 재편하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항 이전 이후의 활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광주 도심의 종전 부지는 글로벌 기업과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무안 지역은 물류·에너지·첨단 농업을 아우르는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 전반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항 이전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가 주도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한 회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은 재정 부담과 사업 지연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약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국가가 재정

사업으로 직접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 안보와 지역 균형발전, 미래 산업 육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일자리라는 최고의 복지이자 지역 경쟁력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기업이 머무를 수 있는 정주 환경과 산업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뒷받침할 핵심 요소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꼽았다.

한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광주가 창의적 인재가 모이는 도시, 기업이 인재를 찾아 들어오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과 산업 현장이 연계된 인재 육성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한 회장은 “광주·전남이 가진 제조 역량에 디지털과 AI 기술을 결합해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한 수출 구조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며 “에너지와 미래 신소재, AI 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첨단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갖춰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역할도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와 지역 경제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공감대를 넓히고지역 국회의원들이 조당적으로 나서 국가적 결단을 이끌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상의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한 회장은 “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인허가와 규제로 막힌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산업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7일 나주 동신대학교 대정도서관에서 ‘2026년 제1차 빛가람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사학연금, 자체감사기구로 청렴문화 넓힌다

1차 빛가람 감사협의회 성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7일 나주 동신대학교 대정도서관에서 ‘2026년 제1차 빛가람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빛가람 감사협의회는 회원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 청렴문화 확산과 감사 전문성 제고가 목적이다.

이날 감사협의회에는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

송경중 동신대 부총장을 비롯해 주관사인 한민교 사학연금 상임감사, 회장사인 전종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 등 7개 기관 상임감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빛가람 감사협의회 회칙 개정, 전년도 기관별 감사 활동 우수사례, 2026년도 중점 감사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회원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빛가람 감사협의회가 자체감사기구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광주신세계, 올해의 컬러 ‘클라우드 댄서’ 상품 눈길

차분한 화이트 톤 ‘평온·집중’

(주)광주신세계가 소비자들의 트렌디한 쇼핑을 돕기 위한 컬러 마케팅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7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올해의 컬러로 선정된 ‘클라우드 댄서 (Cloud Dancer)’를 활용한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클라우드 댄서’ 색상은 구름이나 눈 또는 바스락거리는 흰 셔츠, 이불을 떠올릴 수 있다.

지난 1999년부터 해마다 올해의 컬러를 선정해온 글로벌 색채 연구소 ‘팬톤’은 클라우드 댄서 색상을 ‘고요한 사색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회에서, 차분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고상한 흰색’이라고 설명했다. 자칫하면 단순한 흰색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평온함이 가득한 흰색으로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팬톤이 지난해 ‘모카무스’를 선정하는 등 채도 높은 컬러를 선정해 온 것과 달리 올해 처음으로 깨끗한 흰색을 선정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클라우드 댄서는 빠르고 자극적인 것에서 벗어나 조용한 성찰과, 회복, 창의적 여백의 중요성을



광주신세계 본관 4층 ‘메종키츠네’ 매장에서 직원들이 올해의 컬러 ‘클라우드 댄서’ 색상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일깨운다는 점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하얀색 도화지의 색상을 뜻한다.

이에 광주신세계 본관 4층 ‘메종키츠네’에서 클라우드 댄서 색상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인다.

아울러 메종키츠네에서는 최대 30%까지 시즌 오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클라우드 댄서 색상의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www.global-dh.com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DH 글로벌